94 물류대상

대상에 한양유통, 포장부문은 태평양이 수상

물류는 '산업의 동맥'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업들마다 물류전담부서를 확대하고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물류합리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물류가 국내에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이래 이제는 모든 기업들이 물류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 정도로 기업경영에서 물류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 지난달 26~27일 (사)한국물류관리협의회가 개최한 94전국물류대회는 국내 물류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물류대회에서는 물류대상 시상식도 열렸는데 수상기업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 종합대상/(주)한양유통

한양유통(대표 가갑손)은 갤러리아백화점을 비롯해 한양 잠실점, 천안점 등 GMS(양판점)와 53개의 수퍼마켓 체인을 운영하는 종합유통업체이다.

한양유통의 물류시스템은 생산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가공센터(1차산품) 및 배송센터(공산품)에 입고한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점포에 도착될 때까지 일어나는 제반 상품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양유통은 이같은 물류시스템을 바탕으로 물류개선에도 힘써 상품의 입고 및 출고, 재고현황을 시점 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단품별 적정재고량을 책정해 수시로 재고현황과 재고의 과부족 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 리얼타임 재고관리를 구축했다.

한양유통은 1차산품의 배송비중이 큰 수·배송부문의 경우 신갈가공센터를 1차산품 전용가공배송센터로 운영, 생식품의 가공·배송을 일원화 했다.

이를 통해 운송차량 6대와 운송비 월 1천2백만원의 절감효과를 봤으며, 산지구매, 비축구매, 시차구매 등 다양한 형태의 구매방법을 실현해 신선하고 위생적인 생식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물류정보 부문에서도 한양유통은 본부 및 점포의 발주정보와 물류시스템을 전산시스템으로 연결, 점포의 발주에 의해 물류센터의 매입, 출고에서부터 실재고, 보유재고 등에 이르기까지 통합관리하고 있다.

또한 올해 유통VAN 구축에 따른 EDI(전자문서교환) 시스템을 시행해 가격 및 상품정보, 재고정보 등을 신속하게 입수, 수요에 대한 공급탄력성을 증가시키는 한편 협력업체와의 유대강화, 영업환경 파악 등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

◆ 교통부 장관상/한진그룹

한진그룹(대표 조양호)은 국내외에 걸쳐 수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 등 물류 전분야를 망라한 육·해·공 종합운송시스템을 갖춘 물류그룹이다.

한진이 종합물류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한진의 육상운송, 한진해운의 해상운송, 대한항공의 항공운송 등 삼각축과 그룹내 수송정보시스템이 밀접하게 결합돼 육·해·공 공히 유기적인 업무연계를 통해 육운과 해운, 육운과 항공, 해운과 항공 등의 복합수송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진그룹은 그룹내 핵심 물류서비스 조직인 (주)한진과 한진해운, 대한항공 등 운송부문의 축적된 노하우와 그룹내 한진정보통신의 물류정보체계 및 정보통신 기술력을 접목, 종합물류 수송 VAN 구축을 위한 궤도진입에 성공했다.

한진그룹은 수송, 보관, 하역, 보관, 포장, 정보 등 제

반 물류분야를 하나로 묶는 종합물류 수송VAN 5단계 추진전략 중 제1단계 부문을 8개월간의 개발작업 끝에 올 3월 완료했다.

1단계 물류정보시스템에서는 국내 최초로 육운·해운·항공관련 물류정보와 종합여행정보, 보험상품정보 등 그룹내 관련정보가 해운회사, 운송업자, 항공화물대리점, 화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또한 올해까지는 2, 3단계 서비스로 물류비즈니스를 응용한 공차중개, 창고알선, 도어 투 도어 화물추적 등 20여종의 첨단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보관대상/오로산업(주)

오로산업(대표 황경영)은 지난 77년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로 창업, 현재는 산업용 차량의 부품과 대차, 특수팔레트 등 물류기기만을 생산, 이 가운데 80%이상을 일본으로 수출해온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수출실적 8백20만달러를 기록한 오로산업은 일본시장에서의 인지도가 국내보다 높을 정도로 기술력에 있어 인정받고 있다.

오로산업이 물류기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87년부터로 당시 일본에서 불고 있는 JIT(Just In Time) 생산체제, 자동 창고의 설립, 통합물류센터 건립 등 물류혁신 기류에 편승해 수송 및 보관용기의 대량수요가 발생하는 것에 착안했다.

오로산업이 국내에 보급하고 있는 물류기기는 L형 롤팔레트, 보빙카트, 부품팔레트, U형 네스팅카트, 오로테이너, 크로스써포트 등과 함께 케미컬컨테이너, 행거랙 등이 있다.

오로산업은 올해초 평팔레트, 카트, 랙 등 각종 보관기기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시킨 '오로 컴비네이션 팔레트'를 국내 순수기술로 개발, 양산체제에 들어갔다.

이는 1개의 팔레트로 하역기능, 보관기능(다단적재 포함), 수·배송기능 등을 모두 할 수 있는 전천후 팔레트로 현재 국내 및 일본에서 실용신안 6건, 의장 2건, 특허 1건 등에 대한 출원을 마친 상태다.

선진국으로 수출이 활발히 진행중인 오로컴비네이션 팔레트는 접철식 포스트를 부착, 하부제품의 손상을 줄이면서 다단 적재가 가능하며, 조립식이어서 기존 사양에다 매쉬, 캐스터, 간판, 고무벨트 등을 부착해 다양한 형태로 변경이 가능하고 사용중인 팔레트에 사용할 수 있는데다 파손시 부분교환을 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 수·배송 대상/(주)전국통운

전국통운(대표 조성대)은 지난 68년 설립된 이래 도로화물업 및 운송주선업을 비롯 보세운송 및 특송사업, 항공운송업, 창고보관업을 하고 있으며, 계열사로 새한화물과 한진화물, 정빈통상을 두고 있다.

전국통운의 주요 물류활동은 ▲도어 투 도어 특송사업 ▲운송VAN시스템을 이용한 화주와의 협력체제 구축 ▲복합운송체제 구축 ▲운전자 교육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과 안전운행의 제도화 ▲공차관리 및 화물추적을 통한 물류비 절감효과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화물유통업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통운은 지난 88년 40여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화물유통위원회를 구성, 전국 온라인 화물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일본과 미국 등 선진 화물유통시장을 견학하는 등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해 왔다.

전국통운은 또 전차량에 무선전화기와 운행기록계를 장착하는 등 운행관리를 현대화하는 한편 고급화되는 화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탑차 및 특수차량을 도입해 신속 정확한 화물수·배송은 물론 화주에 대한 질적 서비스 향상에 주력해 왔다.

전국통운은 앞으로 '비전21'이란 사내 프로젝트를 마련, 전국화물유통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자체 물류센터를 설립하고 완벽한 연계수송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도 산업사회에 대응하는 선진화물유통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하역물류기기대상/한국파렛트풀(주)

한국파렛트풀(대표 서병륜)은 지난 85년 '팔레트풀 시대의 개막'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발한 이래 팔레트풀 방식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팔레트풀시스템이란 팔레트를 표준화시켜 호환성이

있도록 사용함으로써 수송의 합리화와 물류비 절감을 꾀하는 제도로 각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목재, 플라스틱 등 자원 재활용도를 제고시켜 국내 물류공동화 및 표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팔레트풀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업체는 제조업체 5백개를 포함해 모두 3천여개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물류전국대회에서 포장부문 물류대상을 수상한 제일제당은 자체 보유하고 있던 팔레트를 전량 처분하고 한국파렛트풀과의 대여체제로 전환, 포장모듈화를 통한 적재효율 향상과 제품손실 및 작업비용 절감 등 상당한 물류개선 효과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5년 5백장의 팔레트로 출발했던 한국파렛트풀이 업체에 대여해 주고 있는 팔레트의 수도 KS 표준 팔래트인 T-11형(1천1백mm×1천1백mm)을 포함, 올해 10월말 현재 1백만장을 돌파하는 등 기하급수적인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파렛트풀은 이와 함께 국내 팔레트 랜털사업에서 벗어나 일본 팔레트 랜털 및 대만 팔레트 랜털 등과 공동으로 한국, 일본, 대만 3국간 대여방식에 의한 아시아 팔레트풀시스템도 구축해 놓고 있다.

◆ 정보 대상/한진정보통신

한진정보통신(대표 고충삼)은 한진그룹의 물류분야 최대 역점사업인 종합 물류수송VAN인 글로밴의 개발에서부터 운용에 이르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현재 운용중인 글로밴 물류안내 서비스와 물류비즈니스 서비스로 구분해 물류지원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최적의 물류욕구를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물류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글로밴의 주요 기능은 공차중개, 유휴창고 알선, 이동체 추적, 유통지원 등 20여종의 물류비즈니스 서비스가 밴기능과 최첨단 물류관련 기술을 응용해 고객들에게 제공된다. 두번째는 물류안내 및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물류 수송정보, 수출입업무 관련정보, 일반 안내 및 홍보, 기타정보 등 모두 2백여종의 정보서비스와 신규개발될 1백50여종의 국내외 물류관련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가 추가 제공된다.

또한 시스템 및 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EDI, E메일 등 데이터의 축적, 전송, 교환서비스와 멀티미디어 변환서비스 등 정보통신 관련 50여종의 서비스, 넷째는 고객에게 적시 전략적 물류정보에 대해 제언함으로써 고객의 시장요구에 부응하고 경쟁우위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도의 물류자문서비스를 물류수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세계 8대 권역별 정보망 구축을 통해 입체적 물류수송협력체제 및 범세계적 물류수송과 정보연결망을 바탕으로 세계전역을 단일 물류거점화 하는 종합 물류서비스도 제공한다.

◆ 포장대상/(주)태평양

태평양(대표 한동근)은 일찍 물류부문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부문의 개선활동에 착수해 왔다. 또 물류부문의 투자를 통해 유능한 인재와 훌륭한 설비를 갖춘 국내 물류기업으로서 기반을 구축해 놓고 있다.

태평양은 지난 92년부터 부문별로 문제점을 진단, 종전의 푸쉬풀시스템으로 이행하기로 하고 우선 1차로 올해말까지 물류부문은 창고와 물류센터, 물류거점간의 기능을 분담하고 거점간 대형왕복수송 다이어그램(도식)을 마련하는 한편 단품의 고객별 분류 및 배송일정을 조정키로 했다.

또 판매부문은 PC 및 EOS(전자주문시스템)에 의한 자동 수·발주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정보에 의한 생산계획을 수립토록 했고 생산부문에 있어서도 포장 모듈화 및 팔레타이징에 역점을 두었다.

정보부문도 대리점의 온라인화를 비롯해 수·발주 자동화, 자동 보충시스템 등을 도입키로 했다.

태평양은 서울지역 및 지방의 단계별 거점 구조변화 작업을 실시, 각 지점의 창고를 물류거점화하는 한편 물류창고의 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센터에 공동 배송센터체제를 확립했다.

이처럼 태평양이 물류혁신에 불을 다기게 된 것은 영업부문의 상품과로 시작됐던 물류조직이 지난해 물류사업부로 개편, 경영층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